

한국·북미 학위취득자간 국제협력 성향 비교 분석*

서경희** · 조남재***

차 례

1. 서론
2. 국제협력에 대한 국내의 제도적 지원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학문과 교육의 세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원천이 지식과 연구의 수월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지식기반 경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연구 역량 확충 및 과학기술 인프라 향상을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및 국가 등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 학술 정보 및 연구 인력 교류, 국제학술교류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해나가고 있다(Friedman, 2005).

선진국은 물론 경제적 위상이 높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국가 간 학술교류협력의 중요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자료수집에 협조해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감사표사를 포함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교신저자

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욱 적극적이고 활성화 된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학술활동과 국제협력의 확대가 상승적 관계를 가지고 진화되고 있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종학위 취득 국가’라는 교육적 배경이 학위취득 후에 보이는 연구자의 국제협력 관련 연구 성향이나 국제 협력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국제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할 것으로 본다.

교육환경과 학습환경은 학습과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습 내용의 응용 등 학습 후의 활동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위취득국가를 국내와 북미지역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북미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른 환경에서 학습을 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내 학문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의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습환경과 한국에서의 학습환경의 대표적인 차이는 먼저 학습의 매체로 활용되는 언어에 있다. 한국에서의 박사과정 교육에서 영어를 수단으로 하는 학습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나라는 60여 개국에 이르며, 비영어권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 학술활동 및 국제 협력 연구에서 공식언어로 채택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미권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학자의 경우 언어에 대한 장애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북미권에서의 교육환경의 또 다른 특성을 들자면, 북미권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양성(Diversity)을 강조한다는 점이다(Bloom 1987, Nassbaum 1997). 특히 미국의 경우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피터 우드는 “미국 사회를 휩쓴 어떤 사상 중에서 다양성만한 것을 찾는다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평등과 천부의 권한으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자유 외에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Wood, 2003: 43). 반면에 국내의 경우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다양성보다 동질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협력에 대한 국내의 제도적 지원

현재 국내 각 연구 기관 및 재단에서는 해외 기관과 각종 협정을 통해 국제 학술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각 재단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제 공동연구지원과 국제 학술활동지원, 연구자 국제교류(방문)지원, 연구단체(센터, 연구소)지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태종, 2007; 한승환, 2008).

우리나라의 경우 학술 교류에 대한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대표적인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은 크게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인력교류사업, 대학교수 해외파견 및 초빙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과 학술단체지원 사업 등으로 나뉘어 있다 [표 1]. 본 절에서는 이들 각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 지원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고자 한다(서경희·조남재, 2008)

[표 1]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사업

	사업명	성격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국제연구인력교류	학문후속세대 인력 파견	국제연구인력 해외파견지원
	해외신진우수과학자 초청	해외연구인력 초청지원
	해외우수학생·연구원 초청	해외연구인력 초청지원
	포스닥 국외연수 지원	국내연구인력 해외파견지원
대학교수 해외파견 및 초청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국내연구인력 해외파견지원
	외국인교수 초빙	해외연구인력 초청지원
공동연구 지원사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협력기관 지정연구)	양해각서 체결한 해외연구지원기관과 공동지원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구축	국제공동연구 지원
학술기반 구축	학술단체 지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
	국제학술지발행지원	국제 학술지 발행지원

가. 학문후속세대 인력 파견

학문후속세대 인력 파견 프로그램은 국내 이공계열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교환학생, 인턴쉽, 현지공동연구 및 방문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 전 분야의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교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이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 신청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내연구기관 또는 대학(원)에 재직 중인 지도교수 또는 지도연구원이 있어야 한다.

나. 해외 신진 우수과학자 초청

해외 신진 우수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은 해외 우수 과학자 및 해외교포를 조직적으로 초청하여 국내 취약기술의 연구 인력을 보강하고 해외 원천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영어로 강의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체재비와 유치경비 및 기관지원금을 제공한다.

다. 해외 우수학생·연구원 초청

해외 우수학생·연구원 초청 프로그램은 외국의 우수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국내에 유치하여 학생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 및 해외진출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국내 대학원에 입학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어학성적을 획득한 외국국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되, 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학학위(연수) 과정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라. 포스닥 국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포스닥 국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구 사회 제공을 통해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질적 연구 능력의 향상을 유도하여 연구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학문 분야에 걸쳐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마.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 프로그램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연구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 학문분야에 걸쳐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해외방문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방문연구의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어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 학술지 게재를 권장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바. 외국인 교수 초빙 프로그램

외국인 교수 초빙 프로그램은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하여 선진 이론과 기술 도입 및 새로운 강의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개방적인 학문 풍토 및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학문의 국제화 기반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전 학문분야에 걸쳐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나, 예외적으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국적소지자도 초빙 가능하다.

사. 국제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국제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외 학자 간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주요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정보 수집의 기회와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구수준 제고와 국제연구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해외연구지원기관과 공동 지원되며, 연 2천 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지원하며 학자교류를 위한 왕복항공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세계 우수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자원 및 연구능력의 접목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문 연구계획서 작성을 통해 해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참여를 유

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로 국제적 심사자 풀(pool)을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꾀하고 있다.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해외 공동연구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외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로 하되, 연구책임자는 국내 소속의 연구자이어야 한다.

자. 학술단체 지원 프로그램

학술단체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외 학자들 간의 학술토론 및 연구정보 교류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학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학회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중점 연구소가 주관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학술대회 국내 개최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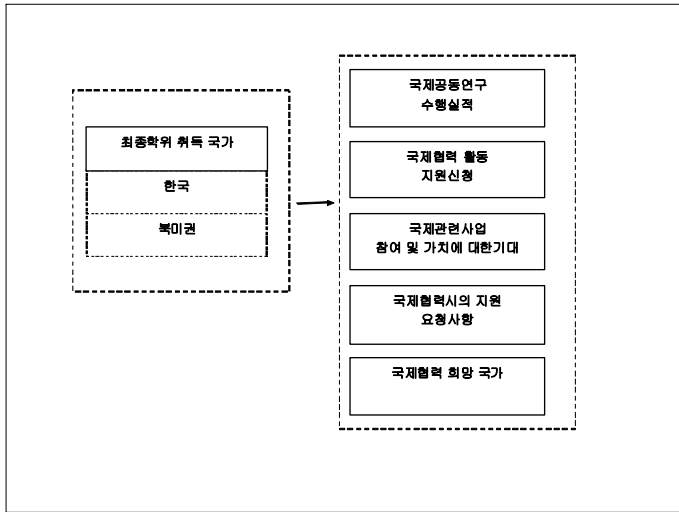
차.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 프로그램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발간 국제학술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수준의 우수 논문발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발행 지원 대상은 학술단체에서 외국어로 발행되는 학술지로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외국어로 된 학술지 발행 실적이 있고, 년 간 발행횟수가 인문사회분야는 2회 이상, 과학기술분야는 4회 이상 발행한 학술단체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국내 연구자(교수 및 국책 연구원의 연구자)의 최종학위 취득 국가를 한국 및 북미로 구분하여 이들 두 그룹 간에 국제 협력연구 경험 및 국제 협력연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을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정의 및 설문문의 구성

1) 최종학위 취득국가

최종학위 취득국가는 한국과 북미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설문을 통하여 해당 국가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설계하였다.

2) 국제협력 및 지원 경험

국제협력 경험의 대표적 특성으로서 국제공동연구의 수행경험을 들 수 있다. 이 항목은 국제 공동연구의 수행경험의 양에 대한 자기 평가에 의존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술진흥재단의 국제 협력 관련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형 (Likert-type 5 point scale)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국제협력 참여에 대한 기대 및 지원결과에 대한 인식

국제관련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문항으로 구체화 하

였으며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형(Likert-type 5 point scale)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①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이 나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이 나의 연구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단의 국제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국제협력 지원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학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들 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에 따른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의 하였다. 5점 척도로 질의한 질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②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파견)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③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④ ‘외국인교수 초빙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⑤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에 이르는 5개의 선택 지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국제협력시의 지원 요청사항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사업 등 각 연구 관련 지원 사업의 유형별로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지원 내용을 설문에서 복수로 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필요 시 원하는 요구사항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 ① 국제교류 관련 정보 제공 (대학, 기관, 연구자 등)
- ② 학진의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③ 연구비 또는 장학 지원
- ④ 기숙사 또는 체제비 지원.

다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의 경우는 선택문항이 다음의 다섯 가지와 기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① 학술대회 해외 홍보 지원
- ② 해외석학 초청 경비 지원
- ③ 해외 대학원생 논문 발표 지원
- ④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
- ⑤ 학술대회 참가자 체제 관련 정보 제공 및 협조.

5) 교류 희망 국가

마지막으로 현재 및 향후 국제협력을 원할 경우 교류를 희망하는 국가를 복수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우리나라와 학문적 국제교류를 수행한 국가 중 대표적인 34개 국가를 열거하여 이들 중 선택하게 하였고, 추가로 기타 아시아 국가, 기타 중남미 국가, 기타 중동국가, 기타 등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열거된 국가들은 주로 아시아, 북미, 유럽의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3.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학술진흥재단을 통하여 수행된 국제협력에 대한 현황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발송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인쇄된 설문지를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총 수집자료는 약 2340건 이며, 항목별로 응답이 없었던 데이터(missing value)가 있었으므로, 이들은 t-테스트에서 항목별로 표본수가 다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본의 수는 통계 테스트에 필요한 수를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로 통계 분석의 신빙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의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종학위 취득 국가에 따라서 연구자들간에 국제협력 관련 연구 성향이나 국제 협력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그룹과 대부분의 국제교류활동의 공용어인 영어를 매체로 학습하는 북미권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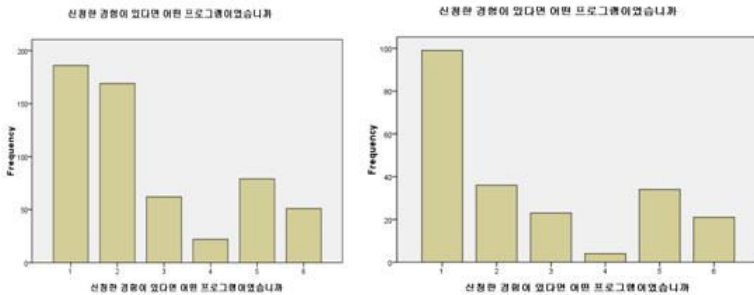
먼저, 두 그룹의 연구자간에 국제 활동에 관련된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자료가 같은 분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t-테스트를 수행하나, 분산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통계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집단의 분산이 상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였다. 레빈의 등분산(Equality of Variance) 테스트 결과, 공동연구 수행경험의 경우 한국과 북미 학위취득자 그룹의 분산이 같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통계량을 활용하였다 (Kleinbaum, Kupper & Muller, 197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경험에 있어서는 북미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그룹이 경험이 더 많았다. 통계 검정의 결과 유의성이 0.05이하라면 95%의 신뢰를 가지고 결과를 믿을 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유의성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차이는 5점 만점에 0.707이었다. 한편 같은 방법으로 [표 2]의 의미를 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국내 학위취득자들의 경험이 북미권의 학위취득자들 보다 더 많았다 (두 경우 모두 유의성은 0.000임).

[표 2] 두 그룹간의 국제활동 관련 경험을 비교한 t-테스트 결과

	국가 (n)	Mean	Std. Dev.	Levene F	t	Sig.
				Sig		df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수행 경험	한국 (1816)	2.55	1.222	.003	-11.581	.000
	북미(522)	3.25	1.254	.955	2336	-.707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 지원 신청 경험	한국(1808)	1.76	.425	44.890	3.498	.000
	북미(522)	1.68	.465	.000	789.152	.079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 지원 수혜 경험	한국(1795)	1.85	.358	59.054	3.729	.000
	북미(518)	1.77	.419	.000	748.153	.075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두 그룹이 실제로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교수방문연구지원에 대한 신청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분포의 패턴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 파견)에 대한 지원 신청의 빈도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학위취득자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전체 신청 사업의 2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북미권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신청경험이 16.6%로 국내 학위취득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청지원프로그램(한국)

신청지원프로그램(미국)

(레전드: 1: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2:국제공동연구(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 파견), 3:국제연구인력교류(해외학자초청), 4:외국인교수초빙, 5:국제공동연구(협력기관), 6:국제학술대회개최지원)

[그림 2] 국제협력 지원 신청 사업 내역 비교

두 그룹의 연구자간에 국제 협력 관련 활동이 자신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대 또는 연구 성과의 향상 등 활동의 효과에 대한 기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기대가 일관성 있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성은 0.05이하로 나타나 (유의성 0.014)차이의 절대량 (Mean Difference)가 크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95%이상의 신뢰성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 관련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국내 학위취득자가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성 0.004와 0.033).

[표 3] 두 그룹간의 국제협력활동의 효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t-테스트 결과

	국가(n)	Mean	Std. Dev.	Levene's F	t	Sig.
				Sig	df	Mean Diff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이 나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1814)	3.76	.889	6.677	2.451	.014
	북미(523)	3.65	.932	.010	815.830	.112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이 나의 연구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1815)	3.77	.864	14.027	2.910	.004
	북미(520)	3.63	.940	.000	787.047	.134
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단의 국제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한국(1814)	3.87	.869	13.739	2.136	.033
	북미(522)	3.78	.951	.000	788.920	.099

아래의 [표 4]는 학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은 경우, 두 그룹의 연구자간에 국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평가한 것이다. 전체 6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영역에서 국내 학위취득자의 평가가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자면 총 6개의 항목으로 된 질문의 결과 4개의 항목은 유의성이 0.05이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굵은 글씨로 표시되지 않은 두 항목, 즉,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제 연구인력 교류 (해외과학자 및 석박사과정생 초

정)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차이의 방향을 보면 7개 모든 항목에서 한국에서 학위를 받는 연구자의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한국학위취득자의 점수에서 북미학위취득자의 점수를 뺀 평균차이 (Mean Difference)가 모두 0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4] 두 그룹간의 국제활동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t-테스트 결과

	국가 (n)	Mean	Std. Dev.	Levene F	t	Sig.
				Sig	df	Mean Diff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 되었습니까?	한국(1062)	2.98	1.160	5.801	.293	.769
	북미(275)	2.96	1.272	.016	399.881	.025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 파견)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 되었습니까?	한국(1045)	3.08	1.150	3.945	3.293	.001
	북미(263)	2.81	1.196	.047	392.850	.270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사업(해외과학자, 석박사과정생 초청)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 되었습니까?	한국(1008)	2.90	1.098	11.926	1.843	.066
	북미(265)	2.75	1.227	.001	382.343	.153
외국인교수초빙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 되었습니까?	한국(995)	2.80	1.066	12.651	3.163	.002
	북미(257)	2.55	1.159	.000	375.461	.252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협력기관지정)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한국(983)	2.88	1.046	18.047	3.241	.001
	북미(262)	2.62	1.168	.000	380.026	.258
국제학술대회개최지원사업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 되었습니까?	한국(1058)	3.09	1.058	5.404	2.488	.013
	북미(275)	2.90	1.158	.020	400.928	.192

국제협력사업의 유형별로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 학위취득자와 북미 학위취득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패턴의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관련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국내학위취득자의 응답이, 체재비 등 부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학

위취득자의 응답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질문은 응답자가 지원 희망사항을 복수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표에 나타난 점수는 평균 선택 빈도를 나타낸다.

[표 5] 국제활동 관련 지원 요청 빈도분석 결과 (복수 선택)

		관련정보 제공 (%)	연구비 지원 (%)	체제비 지원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한국	20.5	34.0	25.4
	미국	11.2	37.0	35.0
국제공동연구(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 파견) 지원	한국	20.6	27.9	31.9
	미국	15.5	27.3	39.2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해외 과학자, 석박사과정생 초청)	한국	23.8	25.8	32.0
	미국	16.2	28.5	40.1
외국인교수초빙 지원	한국	23.0	37.5	24.0
	미국	12.8	42.2	33.2
국제공동연구(협력기관) 지원	한국	21.3	32.6	28.4
	미국	15.6	35.2	36.0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에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는 국내 학위취득자가 학술대회 개최관련 해외 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복미 학위취득자보다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밖의 부분에서는 개최경비지원의 필요성을 복미 학위취득자가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해외대학원생지원 및 체제관련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국내 학위취득자가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다른 항목보다 크지 않았다.

[표 6] 국제학술대회 개최관련 지원 요청 내역 빈도분석 결과

	한국(%)	복미(%)
해외홍보지원	18.4	13.6
해외석학초청경비지원	31.8	33.7
해외대학원생지원	11.1	7.9
학술대회개최경비지원	30.6	36.9
체제관련 정보제공	8.1	7.9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향후의 교류를 선호하는 국가를 파악하였다. 국내 또는 미국의 학위취득자를 막론하고 교류상대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 대한 선호가 복수선택을 전제로 10% 이상의 응답자에 의해 선호대상 국가로 선택되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즉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공 등의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미국 학위취득자의 이들 국가에 대한 선호는 한국 학위취득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선호는 한국 학위취득자가 미국 학위취득자보다 더 높게 나왔다 [표 7a] 및 [표 7b]. 기타 지역에 대한 선호는 이들 두 그룹의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았다.

[표 7a] 국제 교류 선호 국가 (영어권 국가) (복수선택)

	한국-빈도	한국-%	북미-빈도	북미-%
미국	1133	31.2	357	34.4
영국	780	24.7	233	25.6
호주	353	11.2	92	10.1
캐나다	208	5.7	58	5.6
인도	151	4.2	45	4.3
싱가포르	129	3.6	50	4.8
뉴질랜드	81	2.6	14	1.5
필리핀	41	1.1	7	.7
남아공	28	.9	10	1.1
합계	2904	85	866	88

[표 7b] 국제 교류 선호 국가 (비 영어권 아시아 국가) (복수선택)

	한국-빈도	한국-%	북미-빈도	북미-%
일본	986	27.2	246	23.7
중국	639	17.6	168	16.2
베트남	84	2.3	35	3.4
대만	66	1.8	26	2.5
기타아시아	42	1.2	4	.4
태국	38	1.0	16	1.5
인도네시아	26	.7	2	.2
말레이시아	21	.6	5	.5
합계	1902	52	502	48

5. 결론 및 시사점

학문과 교육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중심 사회로의 이행은 국제적 공동 연구, 학술 정보 및 연구 인력 교류, 국제학술교류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을 촉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의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종학위 취득 국가’라는 교육적 배경이 학위취득 후에 보이는 연구자의 국제협력 관련 연구 성향이나 국제 협력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국내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그룹과 대부분의 국제교류활동의 공용어인 영어를 매체로 학습하는 북미권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그룹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그룹의 연구자간에 국제 공동연구의 수행 경험에 있어서는 북미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경험이 더 많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북미 학위취득자들이 덜 느끼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미 학위취득자들의 경우 귀국 이전에 국제 공동연구의 기회에 더욱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학술진흥 재단의 제도적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국내 학위취득자의 경험이 북미권의 학위취득자보다 더 많았다. 국내 학위취득자들의 경우 국제협력과 관련된 상대적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국제 협력에 대한 사업신청의 적극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학위취득자의 국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그룹이 실제로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그룹 공히 해외교수방문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 파견)에 대한 지원 신청의 빈도에 있어서는 국내 학위취득자의 사업 신청이 북미권 수학 학위취득자의 경우보다 높았다. 대학원생, 연구원, 신진교수 등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젊은 신진 연구 인력들이 국제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 신진 연구 인력의 국제적 연구 감각과 수준의 향상 및 확산은 국내 학문의 세계

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내 학위취득자들의 경우 국제 협력 관련 활동이 자신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대 또는 연구성과의 향상 등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북미 학위취득자보다 높은 것은 앞서의 결론과 일관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학한 연구자들이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해외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관련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는 많은 노력과 조직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각국 연구 기관 및 관련 현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교류, 편리한 접속과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 용 문 헌

서경희·조남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2008.

이태종. 『학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한승환. 『세계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Bloom, Alan.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How Higher Education Has Failed Democracy and Impoverished the Souls of Today's Students*,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Friedman, Milton. *The World is Fla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Kleinbaum, Kupper, and Muller.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ble Methods*, Boston, MA: PWS-Kent, 1978.

Nussbaum, Martha. C.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P, 1997.

Wood, Peter. *Diversity*.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3.

Abstract

Analysis of the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North
American degree holders

Kyung-Hee Suh · Namjae Cho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two groups of researchers – North American-degree holders and Korean-degree holders – with respect to their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resear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ducational trai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can affect their perspectives and their patterns of behavior, we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to the two groups. We performed statistical analyses of their experience, attitude, and evaluation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 results show that North American-degree holders have more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than Korean-degree holders. However, Korean-degree holders are found to apply for institutional supports from public research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Korean-degree holders have higher expectation of and positive evaluation towards the collaborative cross-border research opportunities. Korean-degree holders tend to better appreciat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s than North American-degree holders.

As for the specific types of research funding they want to obtain, Korean-degree holders show much higher level of interest in programs that offer overseas research opportunities to the graduate students and

post-doctors. When it comes to the countries preferred for future collaboration, U.S. outnumbered all the other nations, followed by Japan, England, China, and Germany.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learning experience, learning environment, North American-degree holders, Korean-degree holder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research, 학습경험, 학습환경, 북미학위 취득자, 국내학위 취득자, 국제학술교류협력

논문접수일: 2008. 11. 25

심사완료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5

이름: 서 경 희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주소: (130-791)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 영어대학 영어학과

전화: 02-2173-3234

이메일: khsuh@hufs.ac.kr

이름: 조 남 채

소속: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소: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전화: 02-2220-1058

이메일: njcho@hanyang.ac.kr